『人文科學』 제123집 2021년 12월
DOI http://doi.org/10.23017/inmun.2021.123..257

“조선문학이란 무엇이냐”
- 해방기 문학자들의 ‘국어’ 인식과 ‘조선문학’의 형성[*] [**]

임세화[***]

Ⅰ. “문학의 국적” : 해방과 조선어

이 글은 해방기 언어 민족주의/단일 언어주의와 ‘국어(國語)’ 정립 운동에 대한 문학자들의 인식과 활동을 입각점으로 삼아, 해방 후 ‘한국근대문학’과 ‘국민(어)문학/민족문학’의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와 그 잔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근대문학의 독자적 성격을 강조하고 해방 이후 문학어로서의 ‘국어(조선어)’를 자연스러운 소여(所與), 일종의 당위로 간주해왔던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주된 시각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11312)
** 이 글은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반교어문학회 공동학술대회 <디지털 전환과 미래 한국 인문학>(2019.12.14)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도이다. 또한 식민통치의 종결 이후 주권국가 형성기에 나타난 언어담론 및 '조선문학'에 대한 논설과 작품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은 부분적으로나마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지닌 중국과 타이완의 문학에서 나타나는 포스트식민의 언어 상황, '국어/문학어 정립' 과정 등과도 대조군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대상으로서 확장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문학사에서 해방기는 식민통치가 종료되고 단독정부(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의 일종의 공백기로서, 해방의 환희와 혼란이 거칠게 형상화되어 있는 미결정의 시기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해방기 문학은 "산문적, 소설적인 측면을 찾기는 매우 어렵"고, "문학과 정치의 관계 속에 수렴되는 논의를 요청"하는 '정치 우위'의 문학으로 평가되어 왔다.[1] 문학자들의 활동 또한 이데올로기에 편승하여 좌우분열하고 대립하는 양상으로 구도화되었고, 당대의 '민족문학론' 역시 '계급문학'과 '순수문학'이라는 이분적인 접근법이 오랫동안 해방기 문학사의 주류적인 해석이자 일종의 상식이 되어왔다.[2] 본고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근래에는 해방기 문예운동이나 문학자들의 이념적 활동들에 대한 연구에서 나아가 해방기 지식장의 재편과 언어 정치학 속에서 구축되어온 번역담론에 대한 연구[3], 국가 이데올로기와 '민족문학' 사이의 중층적인 겹들을 민족귀환이라는 지정학적 세계 인식과 탈식민 주체의 관점에서 해명한 연

1) 김윤식·정호웅 (1993). 한국소설사. 서울: 예하. 281~313.

2)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 오랫동안 정통의 위상을 차지한 해방기 문학에 대한 관점은 그 이념적 양분화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해방 20주년을 기념하며 쓴 개설에서 조연현은 해방기 문학의 가장 큰 특질로 '문단의 좌우대립'을 거론한다. (한국문인협회 편 (1966). 해방문학 20년. 서울: 정음사. 10~15.) 이러한 관점은 권영민 (1986).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연구. 서울: 서울대 출판부.; 신형기 (1988). 해방 직후의 문학운동론. 서울: 화다.; 김윤식 (1989).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 서울대 출판부 등의 문학사 서술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김재용 (1990). 해방직후 문학운동의 두 가지 민족문학.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 서울: 한길사.; 이수형 (2004). 해방기 민족문학론의 형성 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학보, 30(3) 등 후속 연구에서도 이데올로기의 양분화 과정으로 해방기 문학을 구도화한 관점을 바탕으로 당대의 '민족문학'을 해석하여왔다.

3) 박지영 (2010). 번역의 시대, 번역의 문화정치—1945~1969 냉전 지(知)의 형성과 저항담론의 재구축. 서울: 소명출판.

구[4], 해방 이후 한국의 자기정체성이 냉전질서 속에서 네이션 서사로 구축되어 온 과정을 탐색한 연구[5] 등이 이루어졌다.

요컨대 해방기 문학자들의 문학론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식민청산과 좌우익(중간파)으로 분할되는 정치우위론의 관점 속에서 민족문학론과 그 문예운동적 양상에 천착하여 왔다면, 근래의 주요한 연구 성과들은 냉전과 탈식민주의의 교착 속에서 한국 근대문학이 재/구축되어온 과정을 다각도로 탐사하고 있다. 즉 해방기 문학은 제국의 질서가 붕괴되고 단독정부수립 이후 국가가 안정되기 전까지의 불안정성을 배태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그럼에도 식민지 시기 문학과의 일단의 연계성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속에서 연구대상이 되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문학자들이 '조선문학'의 본질과 전망에 대해 논구했던 내용 역시 좌우익의 이념적 활동들로 규정되어 왔다. 좌우익의 대립구도라는 이분법적 시각과 이념 우위의 해석이 당대 문인들이 가졌던 '조선문학'에 대한 개념과 전망에 대한 논의를 소략화하고 그 위상 설정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학자들이 가장 열성적으로 모여 '조선문학'에 대해 논의하고 쟁투했던 시기, '문학어로서의 조선어(국어)'가 문제적인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치고 식민 상태에서 벗어나자마자 자신의 말과 글로 교과서를 만들고 민족 교육을 행한 나라는 거의 없다"[6]는 문제의식이 주로 국어학의 역사를 구축하고 조명하는 데에 전거가 되었던 반면, 해방 직후 (조선)문학을 논구하는 데에 조선어는 거의 고려되지 않아왔던 것이다. 운동사적 측면에서 조선어를 둘러싼 민족주의를 비판적으로 논구했던 선구적인 연구들[7]조차도 그 대상 시기를 식민지시기에 두었다.

---

4) 오태영 (2018). 팰림시스트 위의 흔적들—식민지 조선문학과 해방기 민족문학의 지층들. 서울: 소명출판.
5) 장세진 (2012). 상상된 아메리카. 서울: 푸른역사.
6) 고영진·김병문·조태린 (2012). 식민지 시기 전후의 언어문제. 서울: 소명출판.
7) 김철 (2005). 갱생의 도 혹은 미로—최현배의 『조선민족갱생의 도』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8.; 이혜령 (2004). 한글운동과 근대 미디어. 대동문화연구, 47.; 이혜령 (2007). 한국소설

이후의 연구들에서 ‘조선어(국어)’가 다시 문제적인 것으로 재조명된 것은 해방 이후의 ‘이중언어’ 상황을 둘러싼 것이었다. 문학의 해방 직후 이태준은 “문학의 국적은 언어에 종속되는 것이다”라며 “조선문학가란, 유일한 조건, 조선말로 쓴다는 것만으로 규정되는 것”[8]이라는 생각을 개진한다. 김남천 역시 “조선문학이란 무엇이냐—이것을 상정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리라 믿지만 가장 큰 조건의 하나는 조선말로 된 문학이라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름다운 조선말을 찾아내고 정리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도 본시 어학자의 일이라기보다는 문학자, 시인의 일”이라는 견해를 밝힌다.

이 새삼스러운 발언들은 해방이라는 사태가 문학자들에게 가져온 고민의 일단을 보여준다. 위의 생각에 따르면 ‘조선문학’이라는 것은 ‘조선어’가 성립되어야 가능한 어떤 것이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도식을 성립시킬 수 있는 규범화되고 체계화된 ‘국어’로서의 ‘조선어’는 부재한 상태였고, 기술적으로 정리된 문학(文學)과 학문, 사상의 언어는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였다. 게다가 해방 직후 한글 문맹자는 12세 이상 전체 인구의 78%[9]에 달할 정도로 문맹률 또한 심각한 상황이었다. ‘민족국가’라는 ‘공감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공통의 언어’란 빠질 수 없는 전제조건이었지만, 정작 그 공통의 언어는 민족 구성원 대다수가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규범화되지 않은 상태의 입말에 가까웠던 것이다. 이렇게 혼란한 언어 상황은 식민통치가 낳은 폐단이자 일제의 잔재로 설명되었고, 결국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국어’와 ‘민족문학’이라는 당위였다.

문학자들은 각종 문학자대회와 글을 통해 해방기 언어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구했지만, ‘국어(조선어)’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중언어’ 상황에서의 문학자 집단의 곤경 내지 정치적인 이념과 작품 경향성의 문제로 재수렴되며,

---

과 골상학적 타자들. 서울: 소명출판.; 三ツ井崇 (2010). 朝鮮植民地支配と言語. 임경화·고영진 옮김 (2013). 식민지 조선의 언어 지배 구조—조선어 규범화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소명출판.

8) 이태준 (1946.6). 국어재건과 문학가의 사명.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서기국 편. 건설기의 조선문학.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 172.

9) 한국교육십년사 간행회 (1960). 한국교육십년사. 서울: 풍문사. 110.

당대 문학운동의 범주에서 고착화된 채 논의되어왔다. 격변하는 정치현실 속에서 문학자들의 전망했던 민족국가의 상과 문학의 역할이 치열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문학어로서의 조선어(국어)'에 대한 담론과 상상들이 역으로 '조선문학'을 인식하고 그 정체성을 형성해나갈 수 있던 주요한 계기점이라는 사실은 간과되어 온 것이다.

또한 '이중언어'[10]라는 명명은 당대의 언어적 상황을 설명하는 효과적인 개념임에 분명하지만, 외국어와 방언, 신어, 제각각의 표기체계를 비롯하여 삼중사중의 겹에 싸여 있던 해방기 언어 상황을 국가(nation)적 관점에서 재분할하고, '국어'라는 것을 자명한 물질성으로 간주하여 단일성 위에서 사고하게 만든다. 중층의 복잡한 겹들을 '국가' 단위의 경계로 분할하고 위계적 질서 위에 재배치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언어 민족주의와 단일 언어주의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따라서 이중언어 개념은 해방기 문학자들의 문학론/언어론의 중층적 성격과 미·소 냉전 체제에서의 새로운 언어 질서와 복합성을 띤 문학장을 해명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 중 하나이다.

주지하듯이 해방기에는 '국어'의 정립='우리말 도로 찾기'(일제의 청산)가 곧 민족의 회복이며 건국의 바탕이라는 인식 속에서, '국어=민족어' 회복에 대한 당위적인 구호들이 횡행했다. 조선어와 영어, 일본어로 대별되는 각기 다른 언어가 혼융되고 위계화되는 동시에 '국어로서의 조선어'가 상대화된 타

10) 자크 데리다는 '단일언어'가 언어적 원본성(authenticity)에 대한 믿음 속에서 만들어지며, 고유한 언어 및 고유한 조국이라는 관념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임을 비판한다. 어떤 고유성과 동일성이 상정될 때에 그것에 속한 것은 자연스럽게 연루되어가고, 속하지 않은 것들은 배제되며 위계화되는 질서를 만들며 정체성에 대한 소외와 상실의 환영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그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소속'되었다고 생각하는 누구도 사실은 완전하게 언어 속에서 합법적이거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제이다. 이 글은 데리다가 논구한 '단일언어' 개념을 빌려 상이한 두 '단일언어'의 겹을 배타적으로 상정하는 '이중언어'와 '국어' 규범화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Derrida, J. (1998). Translated by. Mensah, patrick. Monolingualism of the Other: or, The Prosthesis of Origi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59~60.

자(국가)의 언어 속에서 고유한 '언어'의 체계로서 재발견[11]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민중의 언어 현실과 문학자들의 언어 인식은 '국어'라는 기표와 언어 운동에 단순하게 수렴될 수 없었다. 연합군의 진주와 미국문화의 전파, 일본 잔재 청산과 국어 표준화의 필요성, 영어 열풍과 통역정치에 대한 비판, 새로운 질서를 표상하는 수많은 신어(新語)들이 탄생하며 언어적 헤게모니의 대전환을 알렸다. 그동안 '일본어' 글쓰기를 수행하던 문학자들은 '조선어' 글쓰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민족문학'의 중요 성립 요건으로 '조선어' 글쓰기를 강조했고, 그것은 민족성의 반영으로 치환되어왔던 것이다.

해방기 '국어'의 성립 과정과 '문학어' 논쟁을 둘러싼 문학자들의 언어 인식을 '조선문학'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려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지금까지 자명한 소여 내지는 결여태로 간주되어 오던 해방기의 '어색한/부족한 국어(조선어)'와 '국민(어)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사의 관점에 내재된 언어 민족주의와 단일 언어주의를 비판하고, 해방기 국어(문학어) 담론과 의의를 적극적으로 이론화하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나아가 해방기 언어 상황과 문학자들의 언어인식을 해명했던 틀이 확고한 경계를 가진 '조선어'와 그 순정성을 해치는 '외국어(일본어)'를 전제한 데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미·소 분할의 점령 통치와 냉전 체제 속에서 '국어'라는 이데올로기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함께 작동했던 —그러나 흔히 간과되어온— 영어, 한자, 신어의 교착 관계와 그를 경유한 문학자들의 인식을 재구성할 것이다. '한국근대문학'과 '국민(어)문학/민족문학'의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 내재된 냉전적 이데올로기와 언어 담론을 재탐색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근대문학사에서 해방기 문예 담론의 정체성과 위상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11) 사카이 나오키는 '자연스러운 국어로서의 모어'라는 형상이 한 국민이 다른 국민을 모방하려는 욕망과 자기의 고유성을 주장함으로써 다른 국민과 자신을 구별지으려는 욕망을 동시에 기원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국'문학'의 구축은 이러한 '쌍형상화의 도식'에 근거한 것이다.
酒井直樹 (1997). 日本思想という問題: 翻譯と主體. 후지이 다케시 옮김 (2005). 번역과 주체. 서울: 이산. 74.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해방 이후 '우리말 도루 찾기'와 '국어'의 형성

> 어린 시절에 보았던 삐라의 낙하 광경처럼 기대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설렘을 체험한 적은 없었다. 삐라 떨어지는 곳으로 한참을 달려가 주워 보니 당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빤질빤질하고 제법 두툼한 종이에 한글과 일본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한글은 해독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집에는 한글로 된 책이 꽤 있었지만 한글로 인쇄된 페이지 자체가 어쩐지 촌스럽고 볼품없고 고리타분하게 생각되었다. (…중략…) 거기 비하면 일본의 히라가나는 산뜻하고 날렵하고 멋있게 보였다. 그런데 삐라에 인쇄되어 있는 한글은 어쩐지 산뜻하고 신비스러워 보였다.[12]

1935년에 태어난 영문학자 유종호는 해방 직후 미 공군의 비행기에서 쏟아져 내리던 삐라를 마주했던 순간을 위와 같이 회상한다. "인쇄의 선명성과 지질 탓도 있었지만 어쨌건 권력 관계의 변화가 안겨주는 선입견의 효과가 아니었는가 지금은 생각하고" 있다는 이 사후적인 회고는 미군의 비행기가 일본어와 조선어가 함께 적힌 삐라를 제작해야만 했던 해방기 언어 상황의 일면과 함께 '한글'과 '히라가나'라는 기호의 위계에 대한 감각에 어떤 전복이 일어났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방 전에는 "촌스럽고 볼품없고 고리타분하게 생각되었"던 한글이 "어쩐지 산뜻하고 신비스러워 보였다"고 회고하는 소년은 유감스럽게도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그러니 그가 느꼈다는 산뜻함과 신비로움은 내용이 아닌 '한글'이라는 기표와 상징에 의한 것이었을 터이다. 그렇다면 유종호가 한글을 대할 때 느꼈던 이 새삼스러운 감각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기인한 것이었을까.

1941년 조선어 교육이 전폐된 이후에 학교를 다녔던 다수의 조선인들이

12) 유종호 (2004). 나의 해방 전후. 서울: 민음사. 118.

그러했듯이 유종호 역시 "한글을 처음 깨친 것은 해방 후의 일"[13]이었다. 또한 해방 이튿날의 조회에서는 아마기 교장 선생은 조 교장 선생으로, 니시하라 담임 선생은 이종환 선생으로, 급우들은 돌아가며 출석부 번호 순서대로 각자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성을 밝히며 창씨개명했던 이름을 지우는 '기이한 통성명을 통한 이름 찾기'의 의식이 행해졌다. 뿐만 아니라 '창가(唱歌)'가 '음악'으로, '수신(修身)'이 '공민', '도화(圖畵)'가 '미술', '체조(體操)'가 '체육'으로, 과목 이름도 모두 바뀌었다. 그런데 "'국어'만은 그대로였다."[14] 동일한 사람과 동일한 과목이었던 것들에는 모두 새 이름이 붙여졌는데, '일본어'에서 '조선어'로 완벽히 달라진 '국어(國語)'는 기이하게도 같은 이름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국어'라는 기표를 그대로 둔 채로 일본어에서 조선어로 그 내용물만을 변경시키려던 해방기 언어 민족주의와 민족국가 수립의 열망과도 관계된 것이었다.

일제의 패전 소식과 함께 찾아온 식민 통치의 종결은 자주적인 민족국가 수립에 대한 구상으로 이어졌다. 그 중 민족어의 회복은 곧 정치적 회복이자 건국의 전제라는 당위 아래에서 '조선어'를 회복(정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식민 통치 시스템의 중심을 관통했던 국어(일본어) 상용과 교육 행정을 거치며 '구어'의 영역으로 남은 조선어는 훼손된 민족의 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훼손된 조선어를 회복하는 일은 단순히 언어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정치적 과제와도 직결되는 일이었다.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내면화한다는 것은 서로의 고통과 괴로움을 공유하는 '공감의 공동체', '국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일이다.[15] 일제의 식민지였다는 공동의 역사와 훼손된 조선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동의 사명은 극적인 민족 서사로서 재현되곤 했다.

---

13) 위의 글. 39.
14) 위의 글. 128.
15) 酒井直樹 (1996). 死産される日本語·日本人. 이득재 옮김 (2003). 사산되는 일본어·일본인. 서울: 문화과학사. 155.

가령 1942년 일본관헌에게 압수되었던 조선어학회의 「우리말광」 원고를 조선운송주식회사 창고에서 발견했다는 소식[16]은 하마터면 영영 일제에 빼앗길 뻔한 「우리말광」의 내력과 함께 서사화된다. 조선어학회 관계자의 주간 하에 '수십년간' 만들어진 '6,000페이지에 달하는 거대한 우리말 사전' 「우리말광」은 제작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과 옥사(獄死)라는 희생을 거쳐 지켜낸 숭고한 제물로 서술된다. 그것은 곧 '해방과 자유의 길'에서 되찾을 수 있었던 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해방 이전까지 공식적인 '국어(國語)'였던 일본어는 '우리말'을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동시에 조선어를 국어로 정립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병행되었다. 해방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조선어로 된 교과서 제작과 인쇄가 이루어졌고, 한글 강습회 등이 실시되었다.[17] 식민지 시기는 "조선사람에게 조선말을 가르치치 못하고 한글을 가르치지 못 해온 설움의 날"로 언명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말은 정치로써 깨뜨릴 수는 없다"라는 민족어의 강조는 곧 조선민족과 언어를 등치시키는 은유였던 것이다. '한글날'을 '민족적 기념일'로 축하하는 행사에서 이극로가 울음섞인 목소리로 "우리 독립만세"를 선창하고 "군중은 모두 손수건으로 눈물을 씻으며 감격에 흐느끼는 극적 장면"[18] 역시 한글(조선어)을 민족성의 어떤 정수와 동궤에 놓았던 해방기 조선어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언술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정신의 보금자리요 문화의 샘인 우리말이 오랫동안 왜적 밑에 더렵혔던 것을 깨끗이 바로잡"[19]아야 한다는 취지로 열린 '국어정화위원회'의 활동[20]이 군정청 문교부 산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언어 정화

16) 조선어학회 일제에게 압수되었던 「우리말광」 원고 되찾음 (1945.10.2). 매일신보.
17) 조선어학회, 교재편찬위 구성하고 교재 편찬 (1945.9.3). 매일신보.
18) 조선어학회 주관으로 제499회 한글날 기념식 거행 (1945.10.10). 매일신보.
19) 국어정화위원회, 제1회위원회 개최 (1947.1.21). 조선일보.
20) "일어 또는 바르지 못한 우리 말과 글을 쓰는 경우"를 바로잡고 "까막눈을 없이" 하자는 '국어정화촉진운동'은 문교부의 주도로 1946년 10월부터 전개되기 시작했다. 문교부서 국어정화촉진운동 28일부터 전개 (1946.10.26). 동아일보.

운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하지가 기자회견에서 미군정 시정방침 중 학교 재개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로 '조선의 국어교육'을 언급[21]한 이후 아놀드 군정장관의 포고가 내려지고 학무국은 즉시 조선인을 위한 교육방침을 규정하여 그 내용을 각도에 지시[22]한다. 이때 모든 교원용어는 '조선국어'로 할 것이 명시되었지만, 적당한 교재가 준비될 때까지는 외국어(일본어) 교재만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단서가 붙는다. 즉 국어로서의 조선어가 준비되기 직전까지 일본어가 기능적으로 '국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승인되었던 것이다. 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국어강습회와 교육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23] 해방 3개월 만에 『한글첫거름』과 『초등국어교본』 등 우리말 교본이 편찬되어 각 학교에 반포된다.[24] 이는 조선어학회가 총회를 열고 18명의 교재편찬위원회를 구성한 지 약 2개월 만의 성과였다.[25] 또한 1946년 4월에는 이남에만 약100여 곳의 국어강습소 개소가 결정될 만큼 국어 상용화와 교육을 위한 제도화는 미군정의 정치적 지원 속에서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26]

조선어학회의 핵심 인사들(최현배, 장지영 등)이 주요 임원이 되어 활동했던 '국어정화운동'의 핵심 방침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이 있는 것은 일어를 쓰지 말고 우리말을 쓰며 2) 우리말이 없고 일어를 쓰는 것은 우리의 옛말에서라도 찾아보아 비슷한 것이 있으면 이를 끌어다가 그 뜻을 작정하고 쓰기로 하며 3) 옛말도 찾아낼 수 없는 말이 일어로 쓰여온 것은 다른 말에서 비슷한 것을 얻어가지고 새 말을 만들어 그 뜻을 작정하여 쓰기로 하고 4) 漢字로 된 일어는 일본식 한자를 버리고 우리가 전부터 써오던 식의 한자를 쓰기로 한다.[27]

---

21) 하지, 기자회견에서 미군 施政方針을 발표 (1945.9.11). 매일신보.
22) 군정청 학무국, 신교육방침 각도에 지시 (1945.9.18). 매일신보.
23) 서울시 공립국교장회의, 국어강습회개최와 미취학아동문제 등 결정 (1945.11.7). 자유신문.
24) 우리말 敎科書頒布式 거행 (1945.11.21). 중앙신문.
25) 조선어학회, 교재편찬위 구성하고 교재 편찬 (1945.9.3). 매일신보.
26) 보유회, 약 100개소의 국어강습소 개소 결정 (1946.4.7). 조선일보.

이들 강령은 '오염된 조선어'를 '정화'시키고 바른 '국어'[28]를 정립해야 한다는 일관된 기조를 띠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조선어가 일상어(구어)의 차원에서 벗어나 정치·학문·교육의 용어로 공식화되어야 할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문제는 '국어'였던 일본어의 공백을 채울 새로운 '국어로서의 조선어'가 부재했다는 것이다. 민족어라는 당위로서의 조선어와 일상의 구어가 있었을 뿐, 기존의 '고쿠고[こくご](国語)'를 완벽히 대체할 '국어(國語)'는 이제 막 정립해나가야 하는 무형의 것에 가까웠던 것이다. 또한 '우리말 도루 찾기' 운동은 기실 원래의 우리말로의 회귀라기보다는 공백 상태의 '우리말'을 규범화하고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었다. 군정청 학무국과 국어정화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국어로 확정되지 못한 학술용어를 제정하고 일본식 사회용어를 교정하며[29], 외래어를 국어화[30]시키기 위해 펼친 공식활동들은 이러한 기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즉 해방기 '국어정화'를 기치로 행해졌던 실천들은 '일본어'를 삭제한 자리에 원래의 '조선어'를 채워넣는 작업이라기보다, 기실은 '일본어'를 매개로 한 '조선어'로의 번역과 창출에 가까운 것이었다.

---

27) 국어정화위원회 21일 제1회 위원회 개최 예정 (1947.1.8). 경향신문.

28) '국어'는 자명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주지하듯이 그것은 결코 매끄러운 완결성을 지니거나 무정치한 개념이 아니다. 이연숙은 메이지시대 초기 일본어에서부터 '국어'라는 번역어가 안정된 것이 아닌, 착종된 개념이었음을 지적한다. language의 번역어였던 '국어'의 개념은 계속하여 변천되어갔고, 이후 '국어'는 '국가'와 내적 유기성을 지닌 것으로 결부되며 사상적인 개념이 되었다는 것이다. '국어'가 "국가 지배를 위한 정치적 장치"인 동시에 근대 국가의 "정신을 주박하는 지적 장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국어' 개념에 깃든 폭력성을 반성하고 동시에 '국어'를 자명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국어학'에 대한 학문적 성찰이라는 형태를 동시에 취해야만 한다고 이연숙은 강조한다. 이연숙 (2006). 고영진·임경화 옮김. 국어라는 사상—근대 일본의 언어 인식. 서울: 소명출판. 103~155.

29) 군정청 학무국, 학술용어제정위원회 설치 (1946.3.23). 서울신문.

30) 국어정화위원회, 외래어의 국어화 방법결정 (1948.2.22). 동아일보.

Ⅲ. 문학자들의 자기 비판과 '조선문학'의 과제

해방 이튿날인 8월 16일, 임화 김남천 등 구카프계 문학자들을 주축으로 '조선문학건설본부'가 결성된다.[31] 조직명이 표방하듯 해방 이후의 '조선문학 건설'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서, 여타 어떤 조직보다도 빠른 결성이었다. '조선문학건설본부'는 이후 1946년 2월 9일 열린 전국문학자대회에서 '조선문학가동맹'으로 개칭을 하며, (1) 일본제국주의 잔재의 소탕, (2) 봉건주의 잔재의 청산, (3) 국수주의의 배격, (4) 민족문학의 건설, (5) 조선문학의 국제문학과의 제휴라는 기본강령을 제시하고 실천운동을 전개해나간다.[32] 이들은 '조선 민족문학 수립 만세'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전조선문학자대회>(1946.2.8.~9)를 개최하고, '건설기의 조선문학의 기본과제'와 '금후의 방향'에 대한 강연을 연속적으로 진행해나가는데, 강연의 주제는 <국어와 문학>, <조선어 문제>, <문학과 언어 창조> 등 문학언어와 관련한 것과 <민주주의와 조선민족문학>, <민족문화사의 회고>, <문학혁명의 과제> 등 이른바 '민족문학' 수립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조선문학 건설, 민족문학 수립이라는 과제는 해방기 문학자들에게 어떤 가치와 실천으로 수행되었을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시대적으로 '조선문학'/'민족문학'이라는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했고, 나아가 '민족'과 '문학'이라는 각각의 개념과 가치를 규정할 수 있는 공통의 합의가 있어야 했다. 조선어학회를 위시한 어학자들의 '조선어(국어)' 규범화와 가치화가 미군정청과의 공조 체제와 제도화 속에서 매끄럽게 수행된 데에 반해, 문학자들의 자기 규정과 조선문학에 대한 규범화 작업은 쉽지 않았다.

---

31) 조선문학가동맹은 구카프계가 중심이 된 좌익진영 단체로 분류되며, 이른바 우익진영 단체로는 1945년 9월 18일 박종화, 김진섭, 이헌구, 김광섭, 유치진, 김영랑, 오종식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중앙문화협회가 있다. 중앙문화협회는 1946년 3월 13일 전조선문필가협회로 개칭하였으며, 문학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연극, 영화, 학술, 언론, 출판 등을 모두 망라한 단체였다. 김윤식 (2006). 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 서울: 서울대 출판부. 11~15.

32) 조선문학가동맹 운동사업 개황 보고 (1946.7). 문학, 창간호.

그렇기에 조선문학/민족문학의 언어와 양식을 규범화하기에 앞서, 해방 직전까지의 조선문학과 문학자들의 역할을 정위하는 일은 더욱 필수적이었다. 1945년 가을 박헌영이 민족통일전선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며 첫째로 주장했던 것이 조선민족의 자기비판이었는데, 문학자들도 일련의 영향 속에서 재출발기의 문학적 자기비판을 해나가는 작업[33]을 수행해갔다. 대표적인 자리가 <문학자의 자기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봉황각 좌담회이다.

김남천, 김사량, 이기영, 이원조, 이태준, 임화, 한설야, 한효가 참석한 이 좌담회의 기록[34]은 '문학언어'와 문학자로서의 사명에 대한 해방 직후 문인들의 욕망의 면면과 8·15 이전을 규정하는 작업이 그들에게 얼마나 급박하고 절실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먼저 이태준은 "민족"이라는 제목의 장편소설을 쓰겠다고 예고하며, "수년 전에 무리한 줄 알면서도 매일 신문지상에 그 일부로서 「사상의 월야」를 쓰다가 수십 회의 삭제를 거듭했고 결국 중단되고 만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자유라 우선 가장 부자유를 느끼던 그 작품부터 3부작을 완성해볼까" 한다는 포부를 밝힌다. 검열의 압박에서 놓여나 가장 먼저 서사화하고자 하는 작품에 '민족'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것이 이미 식민지시기부터 예비되어 있던 작품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문학자들이 일제시대에는 겨우 '우리 문학의 명맥만을 연장시켜 왔을 뿐'이라고 자조하며 '자기비판'을 행할 때, 김사량은 과거 일본어로 소설을 쓴 이유("우리말로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자유스러이 쓸 수 있지 않을까, 탄압이 덜할까 생각하고 일어로 썼다느니보다 조선의 진상, 우리의 생활 감정 이런 것을 리얼하게 던지고 호소한다는 높은 기개와 정열 밑에서 붓을 들었던 것이었지만")에 대해 고백한다. 일본어로 쓴 소설을 '조선문학'이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조선문학사'를 다시 쓰고 싶다는 한설야 등의 고민은 기실은 '조선문학'과 '조선어'의 관계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재정립시키고 만들어나가

33) 이원조·홍효민·이원조·권환·김영건 (1946.7). 재출발에 있어 문학적 자기비판. 신문예, 2.
34) 문학자의 자기비판—좌담회 (1946.10). 인민예술, 2.

야 할지에 대한 물음이었던 것이다. 일본어 글쓰기를 자기비판한 김사량을 겨냥하듯 이태준은 아래와 같이 신랄하게 비판한다.

> 이태준 : 나는 8·15 이전에 가장 위협을 느낀 것은 문학보다 문화요, 문화보다 다시 언어였습니다. 작품이니 내용이니 제2, 제3이었지요. 말이 없어지는 위기가 아니였습니까? 이 중대간두에서 문학 운운은 어리석고 우선 말의 명맥을 부지해나가야 할 터인데 어학관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검거되고—예의 홍원(洪源)사건 아닙니까?—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분들은 직업을 잃고, 조선어의 잡지 등 신문, 문화간행물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조선문화를 논할 여지조차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점엔 소극적으로나마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조선어 말살 정책에 협력해서 일본말로 작품활동을 전향한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여간 중대한 반동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같은 조선 작가로 최근까지 조선어와 운명을 같이 하려하지 않고 그렇게 쉽사리 일본말에 붓을 적히는 사람을 은근히 가장 원망했습니다. 물론 사상에까지 일제에 협력한 사람과 그냥 용어만을 일어로 한 사람과 구별은 해야 할 줄 압니다만. (밑줄은 인용자 강조)

문면만으로도 강도가 높은 이러한 비판은 단순히 일부 작가의 도덕성을 비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당시에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태준 역시 일본어 단편소설과 평문을 쓴 사실이 있었다.[35] 김사량을 향한 이태준의 단호한 비판은 해방과 동시에 '국문학(일본문학)'의 영역이 삭제되면서, 일본어로 씌어진 문학을 '조선문학' 속에서 어떻게 재규정할 것인가라는 과제의 틈입을 봉쇄하는 조처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른바 '속문주의'는 식민지시기부터 널리 퍼져 있었다. 식민지 시기 『삼천리』가 기획한 「「조선문학」의 정의—이와 같이 규정한다」라는 설문에 이태준은 "조선문학이라고 하면 조선어로, 조선인이, 조선인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씌어진 문학을 말하는데"[36]

35) 1944년 국민총력조선연맹 기관지 『국민총력』에 발표된 이태준의 일본어 소설 「제1호 선박의 삽화」는 1996년 발굴되어 『문학사상』에 번역본이 게재되었다. 이태준 (1996). 호테이 도시히로·심원섭 옮김. 제1호 선박의 삽화 (1944.9). 문학사상, 25(4).

36) 이태준 (1936.8). 한글 문학만이 「조선문학」. 삼천리, 76.

라고 답한 바 있다. 같은 설문에 이광수 역시 "문학작품의 국적은 씌어진 언어에 속한다"고 명시하며, "조선'글'로 번역된 삼국지 수호지 해왕성 부활 같은 것은 도리어 '조선문학'"[37]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제3차 조선 교육령 실시 이후 개최된 좌담회 「조선문화의 장래와 현재」에서 유진오 역시 일본어 사용을 주장하는 일본 작가들을 향해 "조선 문학은 조선 문자에 의하지 않으면 문학의 의미가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조선문학'과 조선어의 관계를 규정하였다.[38] 이것은 동화일체론으로 조선어를 폐기하고 일본어로의 통합을 꾀하는 시도에 반대하는 논거가 되었으나, 동시에 조선어를 '방언'으로서의 '민족어'로서 보편적인 국어(일본어)에 미달하는 특수한 위치에 놓게 되는 논리에 수렴될 수밖에 없었다.[39] 그러나 해방과 동시에 '민족어'(외지의 방언)였던 '조선어'는 '국어'의 지위로 격상되었고, 식민지시기 문학자들이 펼쳤던 언어론·문학론은 '조선문학'을 규정하는 준거로 정확히 소환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문학/민족문학을 수립하는 데에 '국어(조선어)'는 여전히 문제적인 대상이었다. 이태준은 「국어에 대하야」[40]라는 평문에서 "조선어가 없어질 뻔했으니 조선 민족이 성격적으로 없어질 뻔했고, 조선 민족이 해방되었으니 그 순간부터 같이 해방된 것도 조선어"라며 기쁨을 말한다. 그는 조선어의 표현력과 발음, 뜻을 각기 분석하며 그 우수함을 극찬하는데 그 근거로 타국 언어와의 비교 우위성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일본어 가타카나와 조선어와 발음을 비교하며 폐음이 없는 단점을 지적하거나, 독일어와 영어의 발성과 성음을 비교하며 "문명국의 언어이니 가려지지 미개족의 언어라면, 그런 기괴한 순경음이란 여간 큰 흉이 아닐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식이다. 또한 조선어와 영어의 상호 번역 예시, 불경의 번역 예시를 들며 "어

37) 이광수 (1936.8). '조선문학'의 개념. 삼천리, 76.
38) 조선문화의 장래와 현재 (1938.11.29~12.7) 경성일보.; 윤대석 (2006). 언어와 식민지.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참조.
39) 윤대석 (2009). 1930년대 말 임화의 언어론. 우리말글, 45, 204~208.
40) 이태준 (1946.7). 국어에 대하야. 대조, 1(2).

느 언어든 표현가능성의 일면과 아울러 표현불가능성의 일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는 결국 모든 말의 특성일뿐 "어느 한 언어와 언어의 본질적 차이는 아니"라는 결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조선어의 우월성을 거론하면서도 언어들의 공통적 특질을 강조하는 이태준의 논리는 아래와 같이 조선어의 약점을 비판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지식인들에 맞서 조선어를 변호하기 위해서였다.

> 나는 흔히 지식층 사람들에게서 '조선말이 부족하다!'라는 개탄을 가끔 들었고, 과연 조선말은 다른 외국어에 비기어 부족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가져보았다. 그리고 흔히 조선말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그런 경우가 외국어를 번역할 말이 조선말에 없음을 느낄 때임을 알았고, 그 부족이란 이유는 조선어만의 결함이 아니라 모든 언어의 공통적 일면임을 알았다.

지식인들에게 조선어는 여전히 '국어'로 상용되기에는 모자란 결여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태준은 '조선어'가 "우수한 언어이었으나 그 임자가 운명이 기구한 조선 민족이었기 때문에 정당적 발달을 보지 못"하고, "표준어를 중심으로 한 국어의 문법적 정리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을 것이 한일합병 때문에 다른 면의 우리 문화보다도 뒤져 있는 것"이라며 통탄한다. 조선어가 우수하게 성립되어 있는 동시에 새로이 형성해나가야 하는 미발달의 존재라는 모순적인 지적은 조선어가 '국어'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직면하게 된 과제였던 것이다.

문학자들은 '국어'의 형성을 조선문학과의 관계 속에서 사유했고, 그것을 조선문학과 문학자의 과제로 여겼다. 홍명희와의 대담[41]에서 이태준이 "어휘 많기로는 조선말이 세계에서 으뜸이라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라고 묻자 홍명희는 "확실히 어휘야 많지. 그러나 심리묘사 같은 것을 하자면 말의 부족을 절실히 느끼게 되든걸. 그것은 있는 말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죄도 많으니까. 일후에는 잠자고 있는 말을 캐내는 것도 문학자의 임무

41) 홍명희·이태준·김남천·이원조 (1946.1). 벽초 홍명희 선생을 둘러싼 문학담의. 대조, 창간호.

겠지."라고 답하며 조선어 문제가 조선문학가의 사명임을 명확히 한다. 이 대담은 홍명희를 조선문학을 창조한 3인(최남선·이광수·홍명희) 중 친일을 하지 않고 금일까지 문학을 지켜온 유일한 문학자로 소환하며 기획된 자리로, 조선의 고전문학을 어떻게 계승하고 비평할 것인가, 민족의 우월성을 위해 문학적으로 떨어지는 작품을 억지로 꾸며낼 것인가, 라는 문학사적 논평을 비롯하여 한자폐지론과 횡서 쓰기, 글자 분해, 순한글로의 언어순화 등의 영역을 토의함으로써 문학자들이 부여받은 과제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홍명희의 대담뿐만 아니라 조선문학가동맹의 서기국 또한 「국어문제에 관한 결정서」를 통해 "한자폐지, 혹은 제한, 횡서문제등 우리문학뿐아니라 민족문화건설상 중대한 관계가있는 국어문제는 십수의 의견으로 결정할것이 아니므로 문화각계의 전문가로구성된 공동기관만이 결정할수있다고 생각한다"[42]며 자신들의 과제를 언명하고 있다.

"언어와 현학적인 언어학자"라는 대담의 소주제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이러한 언술들은 어학자들이 미군정과의 공조 속에서 '조선어'장의 헤게모니를 선취하고 문학자들을 배제한 사태를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이원조가 술회하듯이 "우리가 일전에 어학회에 가서 협력을 하려고 했을 때에, 너희들은 8·15 이전에는 조선어를 생각이나 했었느냐는 듯이 독단적이고 관료화"[43]한 태도로 문학자들을 대할 정도로 어학자들은 미군정과의 공조 속에서 제도적·도덕적 위상을 획득했던 것이다.[44] 식민지시기 총독부의 언어 지배 전략과 조선어학회를 위시한 언어학자들의 언어내셔널리즘이 교착되며 언어 규범화 운동이라는 틀 안에서 일제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과거[45]에도 불구하고,

42) 국어문제에 관한 결정서 (1946.6).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서기국 편. 건설기의 조선문학.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

43) 홍명희·이태준·김남천·이원조(1946.1). 앞의 글.

44)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한 언어학자들은 군정청 산하 문교부에 소속되어 조선어 규범화를 위한 언어의 제도화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자폐지실행화발기준비회 결성 (1945.10.16). 매일신보.; 고전문화 부흥과 계승을 위해 학무국에 번역과 설치 (1946.3.21). 서울신문.; 한글가로쓰기연구회, 한글가로쓰기 건의서 문교부에 제출 (1946.9.18). 동아일보.

45) 식민지시기 언어학자들의 언어규범화 운동이 단순한 언어 운동이 아니라 식민 체제를

어학자들은 언어내셔널리즘이라는 기조를 앞세워 다시금 미군정의 후원을 받으며 정치적 정당성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46] 반면 과거 식민체제에 일정 부분 협력하고 공조해왔던 문학자들의 포지셔닝은 어학자들의 그것과 상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학자들은 해방된 조선에서의 자신들의 역할과 새로운 '조선문학'의 의미를 다시금 창출해내야만 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해방 이후 재정립된 '국어사(조선어사)'는 조선어학회를 위시한 언어운동사의 관점, 즉 단일언어주의를 승인하는 관점에서의 언어적 완성(과정)으로 서술되었다. 반면 문학자들의 자기 인식과 '문학어'에 대한 전망은 일본어(일본문학)/조선어(조선문학)라는 대립적 관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어느 한쪽으로 승인되거나 규범화될 수 없던 경계선에서의 글쓰기는 '이중언어' 상황이라는 개념으로 해명되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Ⅳ. 해방기, 다시 씌어진 '조선문학사'

주지하듯이 '민족문학'이라는 용어는 해방기 문학자들의 최대 화두였다. 그러나 "민족문학의 수립이란 구호에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한 글도 아직 없다"[47]고 비판될 만큼 '민족문학'의 개념과 지향은 공통된 합의를 얻지 못하였

공고히 하려는 총독부의 지배 방침과 교착되며 그 영향력과 후원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음을 고찰한 아래의 연구들은 중요한 참고가 된다.
김철 (2005). 갱생의 도 혹은 미로—최현배의 『조선민족갱생의 도』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8.; 이혜령 (2004). 한글운동과 근대 미디어. 대동문화연구, 47.; 三ツ井崇 (2010). 朝鮮植民地支配と言語. 임경화·고영진 옮김 (2013). 식민지 조선의 언어 지배 구조—조선어 규범화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소명출판.

46) 최현배는 미군정청 문교부 편수국장, 장지영은 문교부 부국장, 이극로는 학무국 위촉으로 '조선교육심의회' 위원장, 정인승은 문교부 학술용어 제정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어학자은 군정청의 요직에 등용되고 군정의 지원을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미국 록펠러재단으로부터의 후원을 약속받기도 한다. 군정청 학무국, 초중등교과서 배부 시작 (1945.12.15). 동아일보.; 록펠러재단, 우리말큰사전 발간비 제공 약속 (1948.6.8). 서울신문.

47) 김광균(1946.12). 문학의 위가—시를 중심으로 한 일년. 신천지, 1(11), 526.

다. '민족문학'을 둘러싼 논쟁은 단어의 뜻을 선취하고자 하는 이념적 투쟁에 가까웠으며, 그 자체로 헤게모니적인 용어였던 것이다. 그것은 '국어'와 마찬가지로, 당위적이고 자명한 것으로 논의되었지만 개념적 실체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었다. '민족문학'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언설들을 살펴보면 역으로 해방기 문학장에서 '민족문학'이 형성되어갔던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민족문학'의 형성과 그 개념이 해방기 문학자들의 과제로서 미래를 향해 있었다면, '조선문학'은 과거로부터 이어졌다고 상정되는 공과(功過)로서 연속적이면서도 (단절적 규정을 필요로 하는) 완결성을 지닌 것으로 논의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민족문학'이라는 용어가 식민자로부터 배리된 외지의 문학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던 용례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지향을 의미로 담게 되면서 배태된 현상이었다. 동시에 8·15까지의 '조선문학'의 개념을 규정하고 현재까지의 '조선문학사'를 다시 쓰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것은 과거 외지문학의 한 분파로서 취급되었던 조선문학, 내지가 아닌 외부의 특정 민족의 '민족문학'이라는 용례의 뜻을 바꾸어 격상시키는 필수적인 작업이었으며, 식민지시기 집필되었던 조선문학사(신문학사)의 소환 역시 그 의미를 과거와 전혀 다른 문학사의 맥락에 배치시키는 일이었다.

언뜻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특별한 이 작업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진 '조선문학'과 지향할 '민족문학'을 잇는 공통성은 '조선어'였다. 정치적 구호인 동시에 수행이었던 '민족문학'의 개념을 선취하여 해방 이후 문학 장에서 상징권력을 획득하려는 무수한 시도들은 '조선어'라는 동질성을 상정한 위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느슨한 연결고리를 간취하고 날카롭게 지적한 것은 임화였다.

> 조선말로 쓰면 모두가 민족문학이 되는 것이며, 조선말로 쓴 것이면 죄다 민족문학이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견해가 의외로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지금의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붓대를 잡으면 민족문학의 창조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여항의 야담사류까지가 스스로를

> 민족문학의 작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형편이다. 말하자면 민족문학은 규정할 수 없는 막연한 개념으로서 모든 사람의 자의적 해석에 일임되고 만 셈이다. (…중략…) 그러나 민족문학이라는 숭고한 개념은 편의에 따라서 선택되는 구호도 아니며 일시의 방편으로 차용될 수단도 아니다. (…중략…) 일시의 방편이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의 건설에 전력하는 민족문학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오해와 자의적 해석 가운데 방치되어 온 원인이 동맹 내부의 이해 부족과 동맹의 적들의 곡해에 있었음은 앞서 말한 바와 같거니와 이와 동시에 민족문학에 대한 이념적 규정이 근본적으로 주어져 있지 못한 데 주요한 이유가 있었음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우리는 이제 민족문학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념의 규정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이른 것이다.[48] (강조는 인용자)

임화는 "민족문학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념의 규정"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시인하면서도 "민족문학이라는 숭고한 개념"을 재규정하려는 현상들에 일침을 가한다. 이원조 역시 "민주주의란 말을 누구나 다 모칭(冒稱)할 수 있듯이 민족문학이란 말도 누구다 다 쓰는 말이다. 조선서 문학을 이야기하는 사람 쳐놓고 입으로 민족문학을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없다."[49]고 비판하며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민족문학과 역사적인 범주로서의 민족문학을 분리하여 규정한다. 46년의 <전국문학자대회>에서 국기를 향해 "조선민족문학수립만세"라고 써붙인 슬로건을 향해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부르며 형용할 수 없는 모양의 슬픔 느꼈다는 이용악의 술회[50]처럼 '민족문학'이라는 용어는 해방을 맞은 문학자들의 온갖 지향과 욕망을 담아내는 단어로서 기능하며, 해방기 문

48) 임화 (1947.4). 민족문학의 이념과 문학운동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 문학, 3. 한편 식민지 시기 씌어진 임화의 또 다른 글 조선문학의 개념규정에 반하는 소감(조선문학, 1936.9)은 "민족적·국민적 공통성보다 계급적·경제적·정치적 이해를 같이 한 공통성이 훨씬 우위"임을 강조하며 단순히 '조선어'를 매개로 한 '조선문학'의 개념규정은 "조선문학의 역사적 현실적 본질을 망각케 하고 어문에만 궁극 요인을 설정케 할 형식주의적"인 접근이라며 비판한다. 이러한 임화의 입장이 해방 이후 유사하게 반복되지만, 당대 남한의 문학장에서 유력하게 합의되는 '민족문학'/'조선문학'의 개념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였다.

49) 淸凉山人(이원조) (1948.4). 민족문학론—인민민주주의 민족문학건설을 위하여. 문학, 7.

50) 이용악 (1946.7). 전국문학자대회 인상기. 대조, 1(2).

학 장을 재편해나가는 헤게모니적 언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동시적인 상상과 작동을 가능케 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조선어'라는 느슨하고도 강고한 연결고리였다.

'민족문학'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조선문학'의 개념과 문학사의 위상 또한 격상되었다. 그것은 과거의 문학사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나아갈 '민족문학'의 향배를 가늠하고 재조정하기 위한 시도였다. 고전문학을 대상으로 하였던 안확의 『조선문학사』(1922)를 비롯하여 김태준의 『조선한문학사』(1931), 『조선소설사』(1933)·『증보 조선소설사』 (1939), 임화의 『개설신문학사』(1939) 등 식민지 시기에 씌어졌던 문학사들은 해방 이후 다시 소환되었다. 조선어 독본류 및 작법서적, 조선어사전 등이 출간·복간되었고, 대학의 (구)조선어문학과는 국문학과로 재편되었다. 동시에 조선의 근대문학사를 다시 쓰고 의미화하는 논평들 또한 활발하게 발표되었다.

"3·1운동은 신문학운동의 출발점이었다"는 임화의 문장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그것은 조선문학사와 문예운동사를 민족사적 관점에서 재정립하려는 시도였으며, "조선문학이 8·15 이후의 걸어갈 길"을 제시하려는 기획이었다.[51] 김태준 역시 "우리 고문학이란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수집, 학습, 연구, 보급, 계승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긴급히 토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52]며 고대소설과 가사, 조선 한문학 등과 1876년 이후의 근세문학부터 신경향파문학, 카프문학 등을 문학사적 연장선상에 놓고 논의한다.

한효도 1910년부터의 조선 역사·사회적 배경과 정신사적 경향, 문학사상을 논의한다.[53] 임화가 식민지시기에 집필했던 조선신문학사를 소환하여 문학사를 재정립하고 사상적 흐름 위에서 문학사의 계보를 구축하려는 기획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는 "사십년의 우리 문학사가 그대로 하나의 싸움의 기록

51) 임화 (1947.2). 인민항쟁과 문학운동—3·1 운동 제26주년 기념에 제하여. 문학, 인민항쟁특집호.
52) 김태준 (1946.6). 문학유산의 정당한 계승방법.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서기국 편. 건설기의 조선문학.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
53) 한효 (1946.8). 조선적 낭만주의론—그 이론적 형성에 대한 사적 고찰. 신세대, 3.

이었음은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54]라는 문장으로 그것을 문예운동사이자 독립운동사로 평가하기도 한다.

송영 역시 기미 운동 직후부터의 조선의 예술운동사를 서술하는데 이는 "전통있는 민족"의 서사를 그려내기 위한 기획이었다. 특히 그는 이인직 등을 신문학의 국초로 거론하며 '하였도다' 식의 신소설로부터 발아가 되어서 춘원·육당 등 자연주의적 문학으로 꽃봉오리를 이룩하여 왔다고 평가하며, 신소설의 문체적 특질에 주목한다.[55]

흥미롭게도 해방 후 김동인은 조선어 문체 확립과 관련하여 자전적 소설 「망국인기」(『백민』 1947.3)과 「속 망국인기」(『백민』, 1948.3) 연작을 통해 그 자신이 구어체로 된 '소설 용어'를 확립시키고 '동사의 과거사화', '그/그녀' 등의 '대명사' 활용 등을 시작하며 "개척한 길은 조선 소설도의 한 지표"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그 자신이 조선근대문학의 형성에 독자적이고도 엄청난 업적을 세웠음을 문학사적 관점에 서서 스스로 조망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 연작에는 일제의 '문단 국어화'에 저항하여 조선문을 고집하며 "숱한 수모와 배척의 가시길"을 돌파한 자신이 '조선 문학'에 기여한 공로로 '적산가옥'을 불하받는 것이 감사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서술이 개진되어 있다. 김동인이 자화자찬한 '조선어문학'의 큰 공로(구어체 문체, 과거동사, 대명사)들은 기실 일본어를 경유한 번역어의 확립과정임이 명백하지만, 그는 일본어의 존재를 괄호 치고 그 자신이 조선 소설을 위해 이룩한 업적이라는 점만을 강조하며 문학사에서의 자신의 지분과 그에 대한 실제적 보상(적산 불하)을 주장하는 것이다.

근대계몽기의 국문담론 이후 신소설에서 근대소설로의 이행에 있어 서구 근대문학의 각 장르 규범이 (일본을 경유하여) 조선에 토착화되는 과정을 논구한 연구[56]들이 증명하듯이 조선어 글쓰기의 언어규범은 1920년대 중반 무

54) 한효 (1946.1). 여성과 문학. 여성공론, 1.
55) 鶯峯山人(송영) (1945.12). 조선 프로예술운동 소사(1)—생각나는 대로 토막토막의 초록. 예술운동, 창간호.

렵 그 나름의 골격을 갖추었으며, 특히 소설은 근대문학의 전범으로 간주되어 온 장르로서 그 대표적 증거가 되어왔다.[57] 해방기 조선문학사는 식민 지배로 인한 조선어 말살 정책과 국어(일본어) 강요, 식민자의 검열만 아니었더라면 한층 높은 성취를 이룩했을 것이라는 한편의 비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문학사를 구축해왔다는 당위 속에서 재기술되었다. 특히 '국어'로 씌어진 '문학'이라는 점에서 '조선문학'은 여타 주권국가의 문학과 비견될 만한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조선문학을 세계문학의 반열 속에 놓고 해외의 문학이론으로 조선의 고전들을 해석하는 작업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크라르페』와 같은 전쟁문학, 『호메로스』 등을 언급하며 조선문학을 세계문학과의 대조 속에서 분석하거나[58],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서 언급된 『춘향전』을 게오르그 루카치가 언급한 역사문학의 특질에 비추어 재분석하고 『춘향전』의 혁명적 성격을 해석한 논평[59]이 제출되었고, 전국문학자대회를 개최하며 대회의 이름으로서 연합 각국의 작가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감격이 특별하게 기술되기도 한다.[60] 이는 세계문학 속에 조선의 민족문학을 동등하게 배치하고자 하는 욕망이 반영된 기획들이었다. 해방 이후 조선의 '민족문학'은 단지 자국문학사의 구축뿐만이 아니라, '국어'를 가진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세계문학'의 반열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욕망했던 것이다. 김남천이 해방후의 창작계에 "우리 문학을 진실로 위대한 세계적 수준에 올리기 위하여" 모든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61] 않는 것을 당부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이는 탈식민국가의

56) 권보드래 (2001). 한국근대소설의 기원. 서울: 소명출판.; 김영민 (2005).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서울: 소명출판.

57) 이혜령 (2008). 조선어·방언의 표상들—한국근대소설, 그 언어의 인종주의에 대하여. 임형택·한기형·류준필·이혜령 엮음. 흔들리는 언어들—언어의 근대와 국민국가. 서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306~307.

58) 김영석 (1946.7). 문예의 대중화 문제·기타. 신세대, 1(3).

59) 김영건 (1946.11). 역사문학의 봉건적 성격—특히, 여성관에 대하여. 문학, 2.

60) 이용악 (1946.7) 전국문학자대회 인상기. 대조, 1(2). 이 글에는 쏘련작가 니코라이·치호노프가 전국문학자대회에 우정에 넘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일화도 기술되어 있다.

문학자들이 냉전기 열국체제 속에서 '조선문학'을 새롭게 위치 지으려는 욕망이었다.

한편 해방기 출판의 특징 중 하나는 일제시기에 출간되었던 책들을 재출간했던 현상이었다. '국어'가 된 한글책을 원하는 수요는 폭발적이었지만, 1938년 조선어 폐지(탄압) 이후 한글 출판물을 거의 내지 못했고, 때문에 적지 않은 한글 활자가 사라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옛 책들의 복간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이다. 복간물에는 문학관련 서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했으며, 조선의 고전류와 양서(洋書) 번역물 또한 많았다.[62] 가장 먼저 복간된 책으로 꼽히는 것은 권덕규의 『조선사』였으며, 해방 전 홍이섭이 일본말로 썼던 『조선과학사』는 해방 이후 조선말로 다시 씌어져 출간되었다. 또한 양주동의 『고전독본』은 교과서의 구실을 하며 많이 팔렸고, 이태준의 『문장강화』(1939 연재, 1948 재출간) 역시 대표적인 복간물 중 하나였다.[63] 이태준뿐만 아니라 박태원도 『중등문범』(1946)을 출간하는 등 '조선어 문장 쓰기' 교본류의 출간은 국어 정립과 교육을 위한 목적을 넘어 '조선문학사 다시 쓰기'와의 욕망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었다.

사전류 출간도 활발하여 『한영사전』(김동성, 1945.11), 『한미사전』(변인선, 1945.12), 『신생영한사전』(유형기, 1946.10), 『신어사전』(민조사 편, 1946.4) 등을 비롯하여 『학생조선어사전』(이영철 편·이희승 감수, 1946.10), 『국어사전』(조선도서간행회 편, 1946.12), 『신수국한문대사전』(송완식 편, 1946.10) 등 다양한 사전류 출간이 이루어졌다. 1947년부터는 『조선상말사전』(정대일, 1947.9), 『조선고어방언사전』(김병제·정태진, 1948.12), 『숙어사전』(유창돈, 1948), 『조선고어사전』(정희준, 1949.1), 『조선옛말사전』(이상춘, 1949.9) 등 조선어를 발굴하고 그 외연을 확장하려는 기획의 사전류들이 출간된다.[64] 즉

61) 김남천 (1946.7). 창조적 사업의 전진을 위하여—해방후의 창작계. 문학, 창간호.

62) 해방기 독본 재출간 붐에 대해서는 오영식 (2009). 해방기(1945~1950 간행도서 총목록. 서울: 소명출판. 24~26 참조.

63) 이응규·이경훈 대담. 증언으로 읽는 해방 전후 출판계. (이경훈 (1993). (속) 책은 만인의 것. 서울: 보성사. 292·373). 위의 책 24쪽에서 재인용.

조선의 국어와 역사를 다시 쓰고 습득하고자 하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출판 시장이 형성되어갔고, 연합군으로 조선땅을 밟은 미국과 소련의 문학·사상서들이 번역되어 유통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조선문학사(조선사)에서 가치 있다고 판별된 것들의 집합이자 그것을 선별하는 과정이었으며, '민족문학'의 이상과 지향이 닿아 있는 실제적인 지점이었다.

'세계문학'이라는 조망 속에서 조선문학사를 구축하고 문학사의 정전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작가를 선별하는 작업으로도 이어진다. 해방 직후 조선문학사의 기술과 더불어 씌어진 다수의 작가론과 인물평[65]은 이러한 문학사적 맥락 속에서 집필된 작업들이다.

그런데 다수의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해방 직후의 문예운동은 이른바 좌익진영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 살펴본 해방 직후 작가들의 문예비평 또한 대다수가 소위 좌익진영 작가들인 것 또한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해방기 문단 담론 형성의 중심세력이 되었던 좌익진영에 맞서 '전조선문필가 협회' 산하에 '조선 청년문학가협회'(1946년 4월 4일 결성, 최태응·임서하·김달진·유치진·박목월·박두진·조지훈·조연현·김동리·서정주 등)가 결성되었고, 이 단체가 중심이 된 우익 문화단체 29개가 모여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1947년 2월 12일 결성)이 조직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이들 단체는 남한 사회의 문화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좌익이든 우익이든 '민족문학'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민족문학'의 개념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상황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64) 출간된 사전들의 목록은 오영식 (2009). 앞의 책. 474~476 참조. 이 책에는 해방기 출간된 번역서들의 목록도 함께 정리되어 있다.

65) 김동석 (1946.3). 시를 위한 시—정지용론. 상아탑, 5; 박학보 (1946.3). 홍명희론. 신세대, 1.; 김동석 (1946.4). 소시민 문학—유진오론. 상아탑, 6; 송영 (1946.4). 내가 본 민촌. 신문학, 1.; 안동수 (1946.4). 내가 본 설야. 신문학, 1.; 김동석 (1946.5~6). 탁류의 음악—오장환론. 민성, 6~7.; 이원조 (1946.5). 벽초론. 신천지, 3.; 김동석 (1946.8). 금단의 과실—김기림론. 신문학, 3.; 오장환 (1947.1). 조선시에 있어서의 상징—소월시의 초혼을 중심으로. 신천지, 2(1).; 김동석 (1947). 예술과 생활—이태준의 문장. 예술과 생활. 서울: 박문출판사.; 김동석 (1947). 시와 행동—임화론. 앞의 책.

은 주지하듯이 '순수문학'을 둘러싼 논쟁이다. 김병규는 "본래의 순수문학과 김동리씨가 정치적 견해에서 이용하려는 순수문학과의 거리가 자못 멀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 어색한 순수문학론을 꾸미느라고 문학의 세계사적 의의를 얼마나 왜곡"했는지를 비판한다.[66] 이 논쟁에 대하여 김동리는 『대조』(1947.8)에 '순수문학'은 정통적인 휴머니즘을 따르는 '본격문학'이라 일갈하는 화답글을 싣는다. 이 글에 대해 김병규는 「독선과 무지」라는 제하의 글로 '순수문학'이 상아탑적이냐 아니냐에 대해 되물으며, 순수문학을 본격문학이라 칭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67] 김영석은 한층 더 격정적인 어조로 "김동리씨는 8·15 이후 누구보다도 전투적 정치문학자였다"고 평가하며 "청년문학자의 입을 빌어 인간성의 옹호니 개성 향유의 자유니 하면서 자기네의 문학이 민족문학이요 자기네가 문학의 건설자인 듯이 선전"하는 김동리의 문학론은 "결코 민족문학이 아니라 사이비문학이요 매국문학"이라고 비판한다.[68] 이른바 좌익진영과 우익진영 간 벌어진 대표적인 갈등으로 회자되지만, 기실 이 갈등은 '민족문학'이라는 기표에 대한 이념을 선취하고 상징 권력을 획득하려는 언어적 투쟁이었던 것이다.

'민족문학'이라는 개념에 대한 헤게모니를 획득하고 해방기 문학 장을 재구조화하고자 했던 각축전 속에서 염상섭의 「'민족문학'이란 용어에 대하여」[69]라는 글은 특수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 그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민족문학'이란 용어를 부정하며 '민족문학' 대신 '조선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글이 발표된 1948년 5월은 남한 문학장의 주도권이 우익진영으로 넘어가고, 대다수의 좌익진영 문학가들이 월북을 완료했던 시점이었다. 해방 직후 우위를 점했던 좌익진영의 '민족문학'론의 개념은 전과 같지 않았고 '순수문학'을 민족문학의 구호로 덧씌우려던 우익진영의 세력화가 진

66) 김병규 (1947.2). 순수문학과 정치. 신조선, 1.
67) 김병규 (1948.4). 독선과 무지. 문학, 7.
68) 김영석 (1947.7). 매국문학론. 문학, 4.
69) 염상섭 (2014). '민족문학'이란 용어에 대하여(호남문화. 1948.5).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 3. 서울: 소명출판. 77~81.

전된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족문학'이란 용어보다는 '조선문학'이라는 용어를 쓸 것을 제안한 염상섭의 제안은 문학사적 변곡점의 맥을 짚는 것이었고, 그 용어가 무엇이든 '조선'이라는 주권국가의 안전망 속에서 새로운 '문학'의 길을 도모하고자 한 전환의 시도였다.[70]

Ⅳ. "조선문학이란 무엇이냐?": 언어의 해방, 문학가의 사명

해방 직후 미군정청 문교부에서 발행한 『우리말 도로 찾기』(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1948.6)로 대표되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교육 활동이 지속되었지만, 김기림이 이를 "우리말 도루 찾기"라고 썼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맞춤법과 같은 기본적 체계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한 '국어 정화 운동'과 '우리말 도로 찾기' 등 조선어를 국어로 정립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은 한제폐지/제한, 횡서쓰기, 일본어 잔재 퇴출, 순한글 전용, 신어 활용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갈등과 논쟁을 야기하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국어'에 대한 합치된 의견과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족어로서의 '조선어' 회복을 외치는 당위적인 구호들이 미군정의 정책과 더불어 횡행했던 것이다.

'민족의 해방'과 함께 '언어의 해방'이 도래한 것 같았지만, 기실은 "민족문학의 수립이란 구호에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한 글도 아직 없다"[71]고 지적

70) 이 글의 주요한 논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민족문학'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에 다시 문제적인 개념으로 부상한다. 임헌영은 '민족문학'이란 명칭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소리가 높아짐을 지적하며 그간의 용례와 함께 통용되는 단어(한국문학, 국민문학, 민족주의 문학, 민족문학)들을 내셔널의 번역 문제와 민족의 근대적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한편 백낙청은 민족문학의 개념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 믿는다는 신념을 밝히며, 민족문학의 올바른 전개와 결실을 위하여 '민족문학' 개념의 타당성 문제를 '세계문학'과의 연관성 속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임헌영 (1985(개정증보판)). 민족문학의 명칭에 대하여. 창조와 변혁 (1979). 서울: 형성사. 85~94.; 백낙청 (2011).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민족문학이념의 신전개. 월간중앙. 1974.4).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1. 파주: 창비. 152~170.

될 만큼 그것은 공허한 수사에 가까운 것이었다. 수립할 '민족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 끝에 결국 '민족'이라는 두 글자를 붙이지 않아도 좋을 곳에 '민족'이라는 두 글자가 붙어 있는 것에 오류가 있으며, 남는 것은 "문자 그대로 공소한 스로—간"[72]이라는 점에서 '문학의 위기'가 논해졌던 것이다.

"우리말이 민족적 구어로서는 충분히 보급되었으나 민족적 문어로서는 몇 편의 영성한 문학적 작품 이외에 순전히 언문이란 자기위장인 명사를 감수"하는 처지였다는 고백적 언사의 뒤에 따르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말을 어떻게 "정리하고 완성"[73]시켜야 하느냐는 고민이었다. "'좋은 문학어의 창조'라는 과제"[74]에 대해 다수의 문학자들이 공감하고 이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학자들의 언어구상에는 앞서 언급했던 언어 민족주의에 입각한 조선어학회의 '우리말 도로 찾기'의 활동과 엇갈리는 지점들이 있었다. 특히 외래어를 모두 '조선어화' 하려는 언어정화운동의 기치 아래에서 민중의 언어현실과 배치되는 '낯설고 괴상한' 조선어들이 출몰하는 현상과 잔존하는 일본어, 상용화되고 있는 영어 속에서 '이질적으로' 혼용되는 언어현상을 두고 문학자들의 '언어/문학언어'에 대한 구상은 한층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비정형의 '조선어(우리말)'와 '국어'라는 정형의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면서 빚어진 갈등이었을 것이다.

김기림은 그것을 "문법과 문학의 싸움"[75]이라 명명했다. 그는 순수한 언어라는 이데올로기와 민중의 언어 현실이 충돌하는 국면들에 대해 예리하게 묘파하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듯이 움지기는 것"이며, "말은 어떤 천재가 혼자서 제먹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공동한 참여와 투자로 해서 자라나온 사회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순수주의자'들의 '순수주의(퓨리즘)'은 "폭행에 가까운 일"이라며 말의

71) 김광균 (1946.12). 문학의 위기—시를 중심으로 한 일년. 신천지, 1(11), 526.
72) 위의 글. 527.
73) 이원조 (1945.12). 문학과 언어창조. 신문예, 1.
74) 한효 (1946.5). 문학과 언어—좋은 문학어의 창조를 위하여. 신세대, 2.
75) 김기림 (1949.7). 새말의 이모저모. 학풍, 2(5). 31.

"독재주의"를 경계한다. 동시에 그는 "대중은 기실은 새말을 만드는데 있어서 서뿔른 순수주의자들보다는 사뭇 천재인 것"이며 민중을 "철저한 실용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로 파악한다. '라이타돌', '짚차' 등 우리말과 외국의 말을 함께 합쳐 뜻을 통하게 된 신어들을 잘 만들어진 것으로 꼽고, 그것을 "어느 거리의 천재가 만든 합성어"라고 명명하는 감각은, 언어 민족주의의 기치 하에서 국어 정화 운동을 펼치던 움직임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즉 어떤 일정한 경계와 대립의 체계를 갖췄다고 상정되는 각 국가의 언어가 등가적으로 번역/통역될 수 없다는 자각과 이에 대한 고민이 김기림을 비롯한 문학자들에게 있었던 것이다.[76]

이태준 역시 "조선말이 부족하다!"라는 지식층 사람들의 한탄에 대해 "외국어를 번역할 말이 조선말에 없음을 느낄 때", "그 부족이란 이유는 조선어만의 결함이 아니라 모든 언어의 공적 일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어느 언어든 표현 가능성의 일면과 아울러 표현불가능성의 일면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 표현가능성은 언어마다 불일해서 완전한 번역이란 영원히 불가능한 사실쯤은 알아야" 한다며 이것이 "결코 어느 한 언어와 언어의 본질적 차이는 아니"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77] 그런데 '국어' 창출의 움직임 속에서 조선어는 여러 자리에서 번역어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고전의 번역과 행정 부처의 공식어, 일어로 되어 있던 기존의 학술 용어를 대체할 언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했던 것이다. 전술했듯이 이는 '일본어'를 삭제한 자리에 원래의 '조선어'를 채워넣는 작업이라기보다, '일본어'를 매개로 한

76) 김기림의 당대 언어 상황에 대한 분석은 황호덕의 연구에서 큰 시사점을 얻었다. 황호덕은 해방기 언어 공간을 영어, 신어, 새 말의 '새로운 언어'들이 분할하고 있었다고 분석하며, 신어 중 7할을 장악한 것이 소위 '이즘'의 언어였음을 고찰했다. 황호덕은 해방기 새로운 언어들의 각축과 경험을 장기지속된 식민주의 체제 사이에 놓인 예외적인 휴지기로 파악하고, '개념들이 해방된 시대'는 곧 '반공'과 '빨갱이'라는 거대한 타자에 묻혀 흩어졌고, 일부의 흔적만이 문학과 일부 문건들 안에 잔존한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황호덕 (2014). 해방과 개념, 맹세하는 육체의 언어들—미군정기 한국의 언어정치학, 영문학도 시인들과 신어사전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5.

77) 이태준(1946.7). 국어에 대하야. 대조. 1(2).

‘조선어’로의 번역과 창출에 가까운 것이었다. 또한 ‘조선어’를 국어의 위치에 놓은 ‘조선(국)문학사’를 어떻게 다시 써야할지에 대한 고민은 ‘조선문학’과 ‘조선어’의 관계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재정립시키고 만들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물음이었던 것이다.

“8·15 이후 막연하나마 무엇을 써보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쓸 수가 없었습니다. 쓸 것이 많은 것 같으나 포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의 새로운 고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78]라는 한설야의 고민은 기실 “조선문학이란 무엇이냐”는 김남천의 질문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민족문학’의 개념 규정을 둘러싼 이전투구에서 나타나듯, 문학의 역할과 지향점이 계속해서 덧씌워졌던 해방기 문학 장의 상황과 문학자들의 곤경을 함축한 언술인 것이다.

그렇다면 ‘국어정화운동’의 규범화 작업처럼, 문학자들이 작품에서 일본의 잔재를 말끔히 몰아내고 조선적인 것을 구축하는 것은 수월한 일이었을까. 해방을 맞은 문학자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종결이자 혁명의 시초라며 들떠했지만 ‘우리 문학 속에 있는 모든 일본적 요소를 완전히 청소’해야 한다는 강박에 새롭게 사로잡히게 된다. 일본제국주의의 모든 제도와 시책을 일본어로서가 아니라 조선말로 번역해서 계승하려는 세력을 오히려 더 경계해야 한다는 이원조의 주장[79]은 해방기 문학자들이 맞닥뜨린 언어/양식의 문제를 동시에 담고 있다. “제국주의를 배격하면서 실지로서는 일본제국주의를 모방하는 것”을 경계하고, 동시에 일본적 요소를 완전히 소거한 온전한 ‘조선문학’의 형성이라는 과제는 ‘국어(일본어)’에서 ‘국어(조선어)’로의 치환 못지않게 수월하게 완료되기 어려웠다.

여전히 조선의 언어 환경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일본어 및 과거의 일본어 글쓰기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해명을 비롯한 해방기 언어(민족어) 논쟁의 맥락들은 ‘조선어(국어)문학’으로 온전히 규정되거나 ‘민족문학’으로 귀착

78) 조선문학의 지향—문인 좌담회 속기록 (1946.1). 예술, 3.
79) 이원조 (1945.11.6.~12). 조선문학의 당면과제. 중앙신문.

할 수 없었던 문학자들의 분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즉, 해방 직후 '언어'의 문제가 '(민족)문학'과 불가분의 관계로 호출된 이후, 문학자들은 그렇다면 '조선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응답하는 작업을 언어에 대한 새로운 감각과 시대적 과제 속에서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조선문학'은 해방 이전까지의 '조선문학'의 역사성과 수행을 자양분으로 삼되, 새 조선의 '국민문학'으로서 자질을 갖추어 발돋움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민족'은 수시로 호출되는 수사였지만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한 해석은 불분명했고, '민족문학'으로 소환된 '조선문학'의 본질 역시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백지의 과제였던 것이다.

'조선문학(사)'은 근대 계몽기 이후를—잘 알려져 있듯이 '근대'의 기점에 대한 논박을 포함하여— 하나의 거시적 흐름으로 조망하는 관점 위에서 각 시대들을 변곡점들로 획정하며 규정되어 온 거대한 개념체이다. 문학사의 구획 안에서 해방기 문학은 해방과 건국이라는 중대한 과제로 인한 좌우 간의 이념 갈등을 중심축으로 두고 식민지 과거와의 단절과 연속을 해명하는 가운데 서술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문학이 국민국가의 탄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문학사의 상식을 염두에 두고 해방기 문학장을 다시 조망하면, '조선문학'이라는 역사적 명명과 흐름을 끊고 민족-주권국가의 탄생에 조응하여 새로이 그 개념과 역할을 형성하고자 했던 변혁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더불어 민족-주권국가의 탄생에 조응하는 국어(새 언어) 정립의 과정은 단지 언어·제도적 환경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학'의 역할과 개념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재구축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문학자들이 '조선문학사'와 문학어로서의 '조선어'를 정립하고 어떠한 관계성으로 규정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미군정청(문교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국어' 창출과 '우리말 찾기'는 오히려 '국어'의 외연, '언어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독재적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민족어'와 '민족문학', '문학언어'라는 가치는 동궤에서 실천될 수 없는 엇갈리고 이질적인 질료들이었고, 문학자들은 —체계화되는 순간 그 외연이 좁아지고 닫혀져버리는— 언어와 문학의 가능성들에 대한 구상을 '정치'와 '문학' 사

이의 관계라는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나갔던 것이다.

이 글은 '조선문학사'와 '조선어'를 어느 시점부터 정립하고 어떤 관계성으로 규정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했던 문학자들이 남긴 흔적에 대해 고찰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문학사'를 어디에서부터 다시 쓸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했던 한설야와, 일제시기부터 '조선문학'에 구어체 용어와 과거동사, 대명사 등을 도입했다며 '조선문학'에 기여한 공로를 자화자찬하는 김동인의 서술은 '언어'와 '민족문학'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그 관계성을 재설정하려했던 문학자들의 응답이다. 또한 번역어로서의 조선어에 대해 논하며 "조선말이 부족하다!"라는 지식층의 한탄에 "외국어를 번역할 말이 조선말에 없음을 느낄 때", "그 부족이란 이유는 조선어만의 결함이 아니라 모든 언어의 공적 일면"이라며 조선어의 한계성을 일축한 이태준, "대중은 기실은 새말을 만드는데 있어서 서뿔른 순수주의자들보다는 사뭇 천재"라고 평하며 그것을 "문법과 문학의 싸움"이라고 언명했던 김기림의 감각은, 단일 언어주의의 기치와 위계적 언어 질서 속에서 국어 정화 운동을 펼치던 움직임과는 배치되는 특수한 것이었다. 일정한 경계와 대립의 체계를 갖췄다고 상정되는 각 국가의 언어가 등가적으로 번역/통역될 수 없다는 자각과 문화적 일률성을 구축하는 '단일 언어주의'에 대한 반발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문학자들의 궤적은 포스트식민의 냉전체제 속에서 '조선문학'과 '민족문학'이라는 기표를 오가며 '문학'의 요건과 역할에 대해 치열하게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재구성되어가던 '한국문학'의 언어적 기원, 내지 전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제어】 국어, 언어 민족주의, 국어정화, '우리말도루찾기', 민족문학, 단일 언어주의, 해방기, 문학사, 조선문학

[참고문헌]

고영진·김병문·조태린 (2012). 식민지 시기 전후의 언어문제. 서울: 소명출판.
고전문화 부흥과 계승을 위해 학무국에 번역과 설치 (1946.3.21). 서울신문.
국어문제에 관한 결정서 (1946.6).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서기국 편. 건설기의 조선문학.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
국어정화위원회 21일 제1회 위원회 개최 예정 (1947.1.8). 경향신문.
국어정화위원회, 제1회위원회 개최 (1947.1.21). 조선일보.
국어정화위원회, 외래어의 국어화 방법결정 (1948.2.22). 동아일보.
군정청 학무국, 신교육방침 각도에 지시 (1945.9.18). 매일신보.
군정청 학무국, 초중등교과서 배부 시작 (1945.12.15). 동아일보.
군정청 학무국, 학술용어제정위원회 설치 (1946.3.23). 서울신문.
권보드래 (2001). 한국근대소설의 기원. 서울: 소명출판.
권영민 (1986).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연구. 서울: 서울대 출판부.
김광균 (1946.12). 문학의 위기—시를 중심으로 한 일년. 신천지, 1(11).
김기림 (1949.7). 새말의 이모저모. 학풍, 2(5).
김남천 (1946.7). 창조적 사업의 전진을 위하여—해방후의 창작계. 문학, 창간호.
김동석 (1946.3). 시를 위한 시—정지용론. 상아탑, 5.
김동석 (1946.4). 소시민 문학—유진오론. 상아탑, 6.
김동석 (1946.8). 금단의 과실—김기림론. 신문학, 3.
김동석 (1946.5～6). 탁류의 음악—오장환론. 민성, 6～7.
김동석 (1947). 예술과 생활—이태준의 문장. 예술과 생활. 서울: 박문출판사.
김병규 (1947.2). 순수문학과 정치. 신조선, 1.
김병규 (1948.4). 독선과 무지. 문학, 7.
김영민 (2005).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서울: 소명출판.
김영건 (1946.11). 역사문학의 봉건적 성격—특히, 여성관에 대하여. 문학, 2.
김영석 (1946.7). 문예의 대중화 문제·기타. 신세대, 1(3).
김영석 (1947.7). 매국문학론. 문학, 4.
김윤식 (1989).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 서울대 출판부.
김윤식 (2006). 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 서울: 서울대 출판부.
김윤식·정호웅 (1993). 한국소설사. 서울: 예하.
김재용 (1990). 해방 직후 문학운동의 두 가지 민족문학.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 서울: 한길사.

김철 (2005). 갱생의 도 혹은 미로—최현배의 『조선민족갱생의 도』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8.
김태준 (1946.6). 문학유산의 정당한 계승방법.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서기국 편. 건설기의 조선문학.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
록펠러재단, 우리말큰사전 발간비 제공 약속 (1948.6.8). 서울신문.
문교부서 국어정화촉진운동 28일부터 전개 (1946.10.26). 동아일보.
문학자의 자기비판—좌담회 (1946.10). 인민예술, 2.
박지영 (2010). 번역의 시대, 번역의 문화정치—1945~1969 냉전 지(知)의 형성과 저항담론의 재구축. 서울: 소명출판.
박학보 (1946.3). 홍명희론. 신세대, 1.
백낙청 (2011).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민족문학이념의 신전개. 월간중앙. 1974.4).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1. 파주: 창비.
보유회, 약 100개소의 국어강습소 개소 결정 (1946.4.7). 조선일보.
서울시 공립국교장회의, 국어강습회개최와 미취학아동문제 등 결정 (1945.11.7). 자유신문.
송영(鶯峯山人) (1945.12). 조선 프로예술운동 소사(1)—생각나는 대로 토막토막의 초록. 예술운동, 창간호.
송영 (1946.4). 내가 본 민촌. 신문학, 1.
신형기 (1988). 해방 직후의 문학운동론. 서울: 화다.
오영식 (2009). 해방기(1945~1950 간행도서 총목록. 서울: 소명출판.
오장환 (1947.1). 조선시에 있어서의 상징—소월시의 초혼을 중심으로. 신천지, 2(1).
오태영 (2018). 팰럼시스트 위의 흔적들—식민지 조선문학과 해방기 민족문학의 지층들. 서울: 소명출판.
우리말 敎科書頒布式 거행 (1945.11.21). 중앙신문.
유종호 (2004). 나의 해방 전후. 서울: 민음사.
윤대석 (2006). 언어와 식민지.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윤대석 (2009). 1930년대 말 임화의 언어론. 우리말글, 45.
안동수 (1946.4). 내가 본 설야. 신문학, 1.
염상섭 (2014). '민족문학'이란 용어에 대하여(호남문화. 1948.5).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 전집, 3. 서울: 소명출판.
이경훈 (1993). (속) 책은 만인의 것. 서울: 보성사.
이광수 (1936.8). '조선문학'의 개념. 삼천리, 76.
이수형 (2004). 해방기 민족문학론의 형성 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학보, 30(3). 일지사.
이연숙 (2006). 고영진·임경화 옮김. 국어라는 사상—근대 일본의 언어 인식. 서울: 소명출판.

이원조 (1945.11.6.~12). 조선문학의 당면과제. 중앙신문.
이원조 (1945.12). 문학과 언어창조. 신문예, 1.
이원조 (1946.5). 벽초론. 신천지, 3.
이원조 (淸凉山人) (1948.4). 민족문학론—인민민주주의 민족문학건설을 위하여. 문학, 7.
이원조·홍효민·이원조·권환·김영건 (1946.7). 재출발에 있어 문학적 자기비판. 신문예, 2.
이용악 (1946.7). 전국문학자대회 인상기. 대조, 1(2).
이태준 (1936.8). 한글 문학만이 「조선문학」. 삼천리, 76.
이태준 (1946.6). 국어재건과 문학가의 사명.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서기국 편. 건설기의 조선문학.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
이태준 (1946.7). 국어에 대하야. 대조, 1(2).
이태준 (1996). 호테이 도시히로·심원섭 옮김. 제1호 선박의 삽화 (1944.9). 문학사상, 25(4).
이혜령 (2004). 한글운동과 근대 미디어. 대동문화연구, 47.
이혜령 (2007). 한국소설과 골상학적 타자들. 서울: 소명출판.
이혜령 (2008). 조선어·방언의 표상들—한국근대소설, 그 언어의 인종주의에 대하여. 임형택·한기형·류준필·이혜령 엮음. 흔들리는 언어들—언어의 근대와 국민국가. 서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임헌영 (1985(개정증보판)). 민족문학의 명칭에 대하여. 창조와 변혁 (1979). 서울: 형성사.
임화 (1936.9). 조선문학의 개념규정에 반하는 소감. 조선문학.
임화 (1947.2). 인민항쟁과 문학운동—3·1 운동 제26주년 기념에 제하여. 문학, 인민항쟁특집호.
임화 (1947.4). 민족문학의 이념과 문학운동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 문학, 3.
장세진 (2012). 상상된 아메리카. 서울: 푸른역사.
조선문학가동맹 운동사업 개황 보고 (1946.7). 문학, 창간호.
조선문학의 지향—문인 좌담회 속기록 (1946.1). 예술, 3.
조선문화의 장래와 현재 (1938.11.29.~12.7) 경성일보.
조선어학회, 교재편찬위 구성하고 교재 편찬 (1945.9.3). 매일신보.
조선어학회 일제에게 압수되었던 「우리말광」 원고 되찾음 (1945.10.2). 매일신보.
조선어학회 주관으로 제499회 한글날 기념식 거행 (1945.10.10). 매일신보.
하지, 기자회견에서 미군 施政方針을 발표 (1945.9.11). 매일신보.
한국교육십년사 간행회 (1960). 한국교육십년사. 서울: 풍문사.
한국문인협회 편 (1966). 해방문학 20년. 서울: 정음사.
한글가로쓰기연구회, 한글가로쓰기 건의서 문교부에 제출 (1946.9.18). 동아일보.

한자폐지실행화발기준비회 결성 (1945.10.16). 매일신보.
한효 (1946.1). 여성과 문학. 여성공론, 1.
한효 (1946.5). 문학과 언어—좋은 문학어의 창조를 위하여. 신세대, 2.
한효 (1946.8). 조선적 낭만주의론—그 이론적 형성에 대한 사적 고찰. 신세대, 3.
홍명희·이태준·김남천·이원조 (1946.1). 벽초 홍명희 선생을 둘러싼 문학담의. 대조, 창간호.
황호덕 (2014). 해방과 개념, 맹세하는 육체의 언어들—미군정기 한국의 언어정치학, 영문학도 시인들과 신어사전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5.
Derrida, J. (1998). Translated by. Mensah, patrick, Monolingualism of the Other: or, The Prosthesis of Origi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三ツ井崇 (2010). 朝鮮植民地支配と言語 . 임경화·고영진 옮김 (2013). 식민지 조선의 언어지배 구조—조선어 규범화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소명출판.
酒井直樹 (1996). 死産される日本語·日本人. 이득재 옮김 (2003). 사산되는 일본어·일본인. 서울: 문화과학사.
酒井直樹 (1997). 日本思想という問題: 翻譯と主體. 후지이 다케시 옮김 (2005). 번역과 주체. 서울: 이산.

[국문초록]

해방기는 문학자들이 가장 열성적으로 모여 ‘조선문학’의 개념과 전망을 논의했던 시기로서 ‘문학어로서의 조선어(국어)’는 문제적인 대상이 되었다. 해방 직후 규범화된 ‘국어’로서의 ‘조선어’는 부재한 상태였고, 이론화된 문학과 학문, 사상의 언어는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한문)였다. 미군정청(문교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국어’ 창출과 ‘우리말 도로 찾기’는 오히려 ‘국어’의 외연, ‘언어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독재적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민족어’와 ‘민족문학’, ‘문학언어’라는 가치는 동궤에서 실천될 수 없는 엇갈리고 이질적인 질료들이었고, 문학자들은 —체계화되는 순간 그 외연이 좁아지고 닫혀져버리는— 언어와 문학의 가능성들에 대한 구상을 ‘정치’와 ‘문학’ 사이의 관계라는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나갔던 것이다. 문학자들의 전망했던 민족국가의 상과 문학의 역할이 치열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문학어로서의 조선어(국어)’에 대한 담론과 상상들은 역으로 ‘조선문학’을 인식하고 그 정체성을 형성해나갈 수 있던 주요한 계기점이 되었다.

‘조선문학사’를 어디에서부터 다시 쓸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했던 한설야와, 일제시기부터 ‘조선문학’에 구어체 용어와 과거동사, 대명사 등을 도입했다며 ‘조선문학’에 기여한 공로를 자화자찬하는 김동인의 서술은 ‘언어’와 ‘민족문학’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그 관계성을 재설정하려했던 문학자들의 응답이다. 또한 번역어로서의 조선어에 대해 논하며 “조선말이 부족하다!”라는 지식층의 한탄에 “외국어를 번역할 말이 조선말에 없음을 느낄 때”, “그 부족이란 이유는 조선어만의 결함이 아니라 모든 언어의 공적 일면”이라며 조선어의 한계성을 일축한 이태준, “대중은 기실은 새말을 만드는데 있어서 서뿔른 순수주의자들보다는 사뭇 천재”라고 평하며 그것을 “문법과 문학의 싸움”이라고 언명했던 김기림의 감각은, 단일 언어주의의 기치와 위계적 언어 질서 속에서 국어 정화 운동을 펼치던 움직임과는 배치되는 특수한 것이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문학자들의 궤적은 포스트식민의 냉전체제 속에서 ‘조선문학’과 ‘민족문학’이라는 기표를 오가며 ‘문학’의 요건과 역할에 대해 치열하게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재구성되어가던 ‘한국문학’의 언어적 기원, 내지 전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bstract]

"What is Korean Literature?"
: The literati's perception of Korean language and formation of Korean Literature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Yim, Se-hwa (Dongguk University)

The liberation period was a time when literati most enthusiastically discussed the concept and prospects of Korean Literature.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Korean as a standardized national language was absent, and the language of literature, study, and thought was Japanese (Chinese writing), not Korean. The creation of Korean language and restoration of the national language under the leadership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were rather accepted as a dictatorship to reduce the extension of Korean and the possibility of language. The literati continued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literature. While the image of a nation state and the role of literature were discussed, the discussion of Korean as a literary language was a major chance to recognize Korean literature and to form its identity.

Han Seol-ya, who thought about how to rewrit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and Kim Dong-in, who evaluated himself as contributing to Korean Literature by introducing colloquial terms, past verbs, and pronouns from the colonial era, respond to ques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national literature. In addition, Lee Tae-joon, who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Korean language in translation as a general problem, and Kim Ki-rim, who said the public was genius in creating new words, were special contrary to Korean language movements developed in monolingualism and a hierarchical language system. The diverse spectra of the literati have important meanings as the linguistic origin or previous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hat had been reconstructed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requirements and roles of literature in the postcolonial Cold War system.

【Keywords】 national language, linguistic nationalism, purification of national language, restoration of national language, national literature, monolingualism, the liberation period, history of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논문투고일: 2021년 11월 9일 / 논문심사일: 2021년 12월 8일 /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9일

【저자연락처】 eienin@naver.com